



##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불평등 (educational inequality)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모색\*

김순양\*\*  
영남대학교

신영균\*\*\*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 (educational inequality)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분석변수로 선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들은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와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 등 교육효과로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다문화교육의 실행과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 기존의 교육복지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 모자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교육방식의 다양화, 전문교사의 양성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교육불평등, 다문화교육, AHP]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B00265).

\*\* 제1저자

\*\*\* 교신저자

## I. 서론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체류외국인 수가 118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소위 ‘3D 업종’ 기피현상,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대량 탈북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다양한 이주민 집단들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세 집단은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수적으로는 이주민 집단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대부분이 미혼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입국하여 일정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기한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절대적인 수면에서 많지 않으며(2011년 기준 총 23,568명), 무엇보다도 이들은 외형면에서 일반 한국인들과 동일하며, 자녀들과의 언어소통에도 큰 지장이 없다. 반면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수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입국동기 자체도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꾸릴 것을 전제로 이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상의 차이, 한국어능력의 부족, 한국사회 및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본인의 한국사회 적응은 물론, 자녀교육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주된 관심대상 집단은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정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다문화교육도 대부분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문화정책의 주된 관심을 결혼이주여성 본인에 두었으나, 이후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에도 관심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에 서투르고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 나아가서

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의 따돌림, 정체성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다. 물론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상당수는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결과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건전한 다문화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은 근래 들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행 교육자치제 하에서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의 재정적 여건과 수요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동기 및 관료제적 과잉의욕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의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을 상대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방교육청들을 모두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접근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AHP 설문조사의 대상은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적절한 다문화교육이 이후 이들의 상급학교에서의 교육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초등학교교사들의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도 부분적으로 가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불평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고찰한다. 다음에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를 선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분적인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 1. 교육불평등의 개념

교육불평등은 “가정적, 사회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줄어들거나, 그 결과로서 열등한 교육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현상이다.”(박정수 외, 2006: 20). 교육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교육여건의 불평등,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흔히 교육격차, 교육소외 등과 교호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불평등 문제는 오랫동안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서 많은 학자들이 이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에 입각하여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책을 고안하는 데 몰두하여 왔다.

교육불평등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부모의 경제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

은 취약지역 거주, 사교육 기회의 부족, 부모의 관심부족, 불량학우들과의 교제가능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결과의 제반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가령, 우리의 경우 과열 입시경쟁과 공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사교육의존의 정도가 매우 높은데, 사교육과 부모의 소득수준 간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참여율을 보면, 부모의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교육참여율이 34.3%인데 비해서 100-200만원 미만은 55.3%, 200-300만원 미만은 73.7%, 300-400만원 미만은 82.2%, 400-500만원은 87.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준은 자녀들의 학업성취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1>에 따르면 초·중·고 모두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적 상위 25%이내에 드는 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격차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표 1>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학업성취 (성적 상위 25% 기준)

부모 소득수준 \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	28.7%	36.6%	44.3%
중	22.7%	25.8%	27.9%
하	13.2%	11.2%	9.7%

출처: 한국법제연구원(2010: 45)에서 부분 발췌함.

그런데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방치하게 되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당사자로서는 교육기회나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의 경우는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높은 실업,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연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불평등의 심화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행에 가담하게 할 개연성이 높으며, 그 결과 사회질서 유지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불평등의 심화는 사회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어느 국가나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취약계층 자녀들의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 드림 스타트(Dream Start),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이봉주, 2010).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위스타트(We Start) 등의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인생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교육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김희연 외, 2009).

##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불평등

2011년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전국적으로 38,890명으로서, 2008년의 20,174명에서 92.8%나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별 재학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8,748명(73.9%), 중학교 7,735명(19.9%), 고등학교 2,407명(6.2%)으로서,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도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부모의 경제적 빈곤, 언어 문제, 어머니의 교과내용 및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교육관련 정보의 부족, 학교에서의 따돌림, 학교의 관심부족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심각한 교육불평등 상태에 직면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인관계가 소극적이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학업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성배, 2005). 더욱 심각한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탈(脫)학교율이 일반학생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따돌림이나 학습부진 등으로 학교교육에 흥미를 상실하고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탈학교율이 높

은 것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원 원희목(2008)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당시 다문화가정 학령기아동 24,867명 중에서 24.5%인 6,089명이 정규교육권 바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해당학령아동 18,691명 중에서 2,887명(15.4%), 중학교는 3,642명 중에서 1,459명(39.7%), 고등학교는 2,504명 중에서 1,743명(69.6%)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로부터 이탈하는 비율이 급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07)의 자료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탈학교율은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서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가정 학생들의 취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아동이 취학을 하고 있으며(미취학률 0.4%), 중학교의 경우는 96%, 고등학교는 91.3%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탈학교율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가정 학생들보다 22배나 높으며, 중학교 9.9배, 고등학교 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 2009년 행정안전부 통계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초등학교의 재학률은 83% 정도에 지나지 않아 95%가 넘는 일반학생에 비해서 크게 낮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재학률이 60.9%에 지나지 않아 일반학생의 92.4%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표 2> 일반가정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탈학교율’ 추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학생 미취학률 (%)	0.7	4	8.7
다문화가정 자녀 미취학률 (%)	15.4	39.7	69.6
일반가정 대비 다문화가정 자녀 미취학 배수 (배)	22	9.9	8

취학률=(취학적령의 재적학생수/취학적령인구)×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서 발췌함.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불평등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다문화가정 부모(어머니)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조영달(2006)은 학습과정에 필요한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부적응, 낮은 학업성취, 학교포기 등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2011)이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어능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잘 듣고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보통이다”(42.3%)와 “그렇지 않다”(32.4%)고 응답하였다. “한국어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21.1%, “보통이다” 31.0%, “그렇지 않다” 46.5%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며, “읽기교재를 잘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18.3%, “보통이다” 39.4%, “그렇지 않다” 40.8%의 응답을 보였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따돌림도 이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즉, 감성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아동들이 학급동료들로부터 놀림이나 차별을 받게 되면 학교에 가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순혈주의를 강조하여 왔던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배타성과 차별이 심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안경식 외, 2009). 국가인권위원회(2010)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피부색으로 인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4.4%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다문화가정 학생 81명의 51.9%인 42명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4.8%는 “학교 선생님께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체벌과 부당한 차별대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정하성 외(2007)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 중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며, 43.3%가 자

1) 이 외에도 실제 사례로서 필리핀 출신의 휴티엔씨(32세)에 의하면, “하루는 아들(9세)이 학교에 갔다가 울면서 뛰어오더니”엄마, 나 진짜 외계인이야?“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네팔에서 시집 온 지연이(10) 엄마는 “학교에서 딸아이 별명이 ‘네팔’이라고 하더라.” “아이가 엄마하고 나만 피부가 까매 라고 울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소연하였다 ([//cafe.daum.net/phil-wedding](http://cafe.daum.net/phil-wedding)).



신을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서 유치원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은 2011년 기준으로 총 3,001명이며, 이 중에서 98.3%(2,951명)가 다문화가정(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50명에 불과하다(<표 3> 참조).<sup>2)</sup> 이들의 재학 학교는 초등학교가 1,770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이다. 부모의 출신국가별로는 일본 701명, 중국(조선족 동포) 633명, 필리핀 505명, 중국(한족) 454명, 베트남 436명, 태국 75명, 기타 19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도별로는 경상북도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2008년에는 1,539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2,055명, 2010년 2,335, 2011년 3,001명으로 3년 사이에 약 2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현재 유아기에 있는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경상북도의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결혼이주여성	640	1,750	466	95	2,951
외국인근로자	10	20	16	4	50
계	650	1,770	482	99	3,001

출처: 경상북도 교육청, 2011a.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진학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은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다솜이와 함께 만들어요” 라는 슬로건 하에 6개 주요과제와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급증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나 자녀는

2) 2012년 3월 현재로는 경상북도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3,44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관내 전체학생수 대비 0.9%를 차지하는 것이다(경상북도교육청, 2012).

물론, 일반학생 및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3. 연구 틀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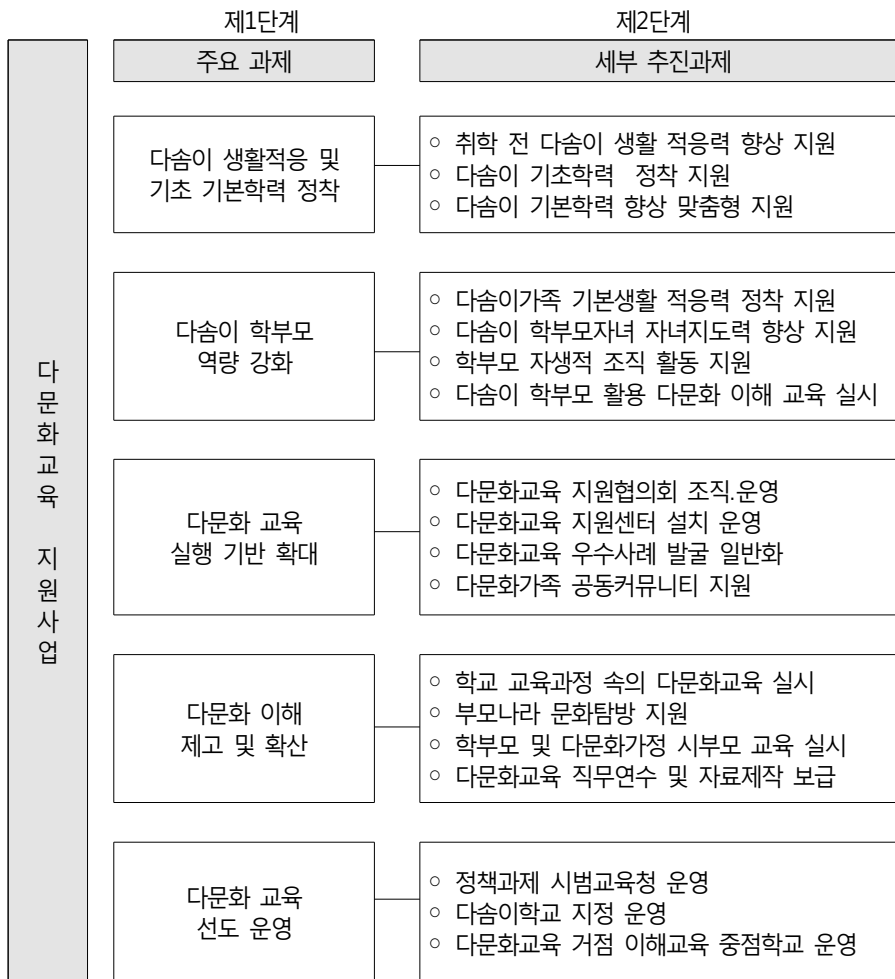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교육당국은 이들의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인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다솜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6개의 주요과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6대 과제는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다문화교육 실행기반 확대,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이 해당하며, 각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의 경우는 경상북도 관내 다문화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가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분석대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취학 전 생활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 기초학력 정착지원, 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포함한다. “다솜이 학부모 역량 강화”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로는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지원,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지원, 학부모 자생적 조직 활동 지원, 다솜이 학부모 활용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의 네 가지가 포함된다. “다문화교육 실행기반 확대” 과제에는 다문화 교육 지원협의회 조직 및 운영,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다문화가족 공동커뮤니티 지원 등의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된다.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과제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에는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 교육 실시,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 학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 실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자료제작과 보급의 네 가지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과제는 정책과제 시범교육청 운영, 다솜이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 거점·이

해교육 중점 학교 운영의 세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가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5개 과제 및 18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하에서 이처럼 다양한 과제들을 동시에 시

〈그림 1〉 본 논문의 AHP 설문조사를 위한 분석변수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사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교육이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요과제별 및 세부 추진과제별로 우선순위를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다문화교육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은 이러한 취지를 가지는 본 논문에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분석변수로 선정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이다.

### Ⅲ.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 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sup>3)</sup> 주지하다시피 AHP는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서 개발된 이래,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서 널리 사용되어 온 분석기법이다. AHP는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계층을 갖는 다수의 수준(level)으로 나눈 후, 이를 수준별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한다. 즉, AHP는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요인과 세부요인들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雙對比較,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AHP기법은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

3) 경상북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전략과 지원사업의 시행 목적을 살펴보면,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은 다문화가정의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경상북도 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전략 및 지원사업 계획 2011b).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불평등 해소차원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떠한가를, 현장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그리고 AHP기법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는 우선순위 분석기법이기에 때문에 반드시 많은 수의 표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대체로 30부 정도의 설문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AHP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형태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의 일선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1.10일부터 동년 2.10일까지 총 60부를 배포하여 5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일관성 비율이 0.2이상인 21부를 제외한 39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sup>4)</sup>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는 남성이 20명(51.3%), 여성이 19명(48.7%)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12명(30.8%), 30대 14명(35.9%), 40대 6명(15.4%), 50대 7명(17.9%)로 분포되어, 20-30대에 있는 교사들이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 17명(43.6%), 1년 이상-5년 미만 17명(43.6%), 5년 이상-10년 미만 3명(7.7%), 10년 이상 2명(5.1%)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 중에서, 현재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가정과는 무관한 북한이탈 학생교육 지원과제를 제외한, 5개의 주요과제 및 이에 포함되어 있는 18개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교사들을 상대로 한 AHP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은 5개 주요과제들 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각 주요과제들을 구성하는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5개의 주요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4) AHP기법의 타당성 검증에서는 조사대상 응답 중에서 쌍대비교를 통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2 이하로 나타나는 응답자료만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최우람, 2004).

를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초등학교교사들은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중요도 0.2900),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중요도 0.2689),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중요도 0.1857), 다문화교육 실행 기반확대(중요도 0.1630),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중요도 0.0933)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고 있다.

<표 4>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주요과제	중요도	순위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 기본학력 정착	0.2680	2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0.2900	1
다문화교육 실행기반 확대	0.1630	4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0.1857	3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0.0933	5
합 계	1.00	-

이처럼 초등학교교사들의 경우 “다솜이(다문화가정 자녀) 학부모 역량강화” 과제에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부여하는 것은 이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아직 초등학생들인 관계로 학교교육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학부모들의 교육과 지도가 긴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교 교과내용 및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2007)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65%가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양육 및 교육을 본인이 직접 행하고 있으나, 본인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필리핀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41.3%,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30.4%). 그 결과, 가정에서의 적절한 교육지원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박천웅(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5) 이러한 현상은 경상북도 관내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북여성정책

현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자녀들의 교과공부 및 시험지도 80.5%, 한국어공부 지도 76.8%,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및 문화에 대한 지도 69.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과의 면접내용으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를 적절하게 도와주지 못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가르치고 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3-4학년이 되니까 한국어를 썩 잘하지 못하는 내 능력으로는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친구들과의 문제도 내가 간여하여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다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2011년 12월 3일,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의 면접내용).

...제 아이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잘 가르치지 못했고, 친한 한국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셔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니까 왕따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많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 안 갈려고 해서 억지로 보내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2011년 12월 4일, 경상북도 포항지역 다문화가정 베트남 학부모와의 면접내용).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도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아직 부모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

개발원(2006)의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 시에 어려운 점으로는 미취학 자녀의 경우는 한국의 동요나 동화 등을 몰라서(41.7%), 말이 통하지 않아서(26.3%)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취학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교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27.8%), 한국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22.2%)의 순으로 빈도가 높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학생에게 주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준비물을 읽고 이해하지 못해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제는 아예 해오지 않는데다가, 준비물도 가져오지 않으니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2011년 12월 5일, 경상북도 경주지역 다문화가정 필리핀 학부모와의 면접내용).

물론, 교육당국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학부모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상북도 관내의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농어촌지역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농어업종사로 인한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농어촌지역의 시부모나 남편들 중 일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잦은 외부출입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방문교육 및 상담도 실시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는 주요과제는 “다문화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 과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는 외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크며,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 학업과 관련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사교육에 접근하는 데서 한계가 있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순위는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과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1,2순위로 나타나는 상기한 두 과제와는 중요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실행기반 확대 및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도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의 경우는 거시적 처방이나 행정관리 측면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와 보다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과제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교사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당국의 경우도 기구설치 등 행정관리 측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제



로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선교사들이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과제에 대해서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내실을 다지고 현장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신설이나 기구설치에 치중하는 교육당국의 관료제적 발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본 연구에서의 AHP 설문조사 대상인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5가지 주요 과제는 전체적으로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해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다솨이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

“다솨이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생활 적응력과 기초·기본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 과제는 산하에 취학 전 다솨이 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다솨이 기초학력 정착지원, 다솨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이라는 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취학 전 다솨이 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과제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초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초등학교 입학 초기의 생활적응력을 사전에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유치원 중일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다음에 “다솨이 기초학력 정착지원”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능력과 생활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준별 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솨이 사랑방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지도, 교육 및 생활 상담 등을 시행하며,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다솨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기본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별 맞춤형 집중 지도를 행하고 방학 중에는 기초학력 심화 캠프를 운영하며, 담임 교사가 연중 개별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기초학습 특별지도를 행한다. 그리고 관내의 대학생들을 멘토로 하여 한국어 지도, 교과학습 보충, 우리문화 이해력 증진 등과 관련한 1대1 멘토링 제도도 운영한다.

이러한 세부 내용을 가지는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이 부여한 우선순위를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취학 전 다솜이 생활적응력 향상 지원이 1순위(중요도 0.4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솜이 기초학력 정착지원(중요도 0.3042), 다솜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중요도0.264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기본학력 정착”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세부 추진과제	중요도	순위
취학 전 다솜이 생활적응력 향상 지원	0.4309	1
다솜이 기초학력 정착 지원	0.3042	2
다솜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	0.2649	3
합계	1.00	-

이처럼 취학 전 다솜이 생활적응력 향상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능력은 취학 전에 형성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생활적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단계에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수요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교육당국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습능력을 유지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시기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언어전달 학습을 강화하는 등 기초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6)의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의 경우 주된 양육담당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52.6%가 결혼이주여성 자신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

우는 15.8%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는 2006년 자료이지만, 경상북도 관내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보육시설이 부실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현재도 여전히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적절한 취학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정착 지원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선은 한국어능력 및 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기초학력 신장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집중지도나 1대1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의 방법으로 기본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 전반에 대한 기초다지기를 먼저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 2)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한국어 및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 일상생활, 이중언어 능력을 배양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에는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 지원,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 지원, 학부모 자생적 조직 활동 지원, 다솜이 학부모 활용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의 네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 지원”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로 하여금 한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교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상담지원을 행한다.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 지원”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녀들에 대한 지도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5개 국어로 된 학부모용 교육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가족캠프를 개최하고 다문화교육 사례 발표와 전통문화 체험을 하게 한다.

“학부모 자생적 조직 활동 지원”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일생 생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운영하고, 대학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월1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상담일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다솜이 학부모 활용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하여 모국어 활용 지도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및 지역대학들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주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외국어 및 이중언어 지도를 하게 한다.

이러한 세부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지원”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중요도 0.3458), 다음으로는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 지원”(중요도 0.2747), “다솜이 학부모 활용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중요도 0.2066), “학부모 자생적 조직 활동 지원”(중요도 0.1729)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표 6>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중요도	순위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 지원	0.3458	1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 지원	0.2747	2
학부모 자생적 조직 활동 지원	0.1729	4
다솜이 학부모 활용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0.2066	3
합계	1.00	-

세부 추진과제들 중에서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지원” 과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한국어능력과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이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과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기본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이들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한국어능력의 부족으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자녀들의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녀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일반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들 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과의 면접내용을 통해서 보면, 현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 교육제도, 관련정보 등에 이해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저학년인데도 학교에서 해 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도 무엇을 해 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나도 가정통신문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우리 아이에게는 과제를 검사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되지 않고 출신 나라대로 달라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를 어디 좀 보내서 가르치려고 해도 가까운 곳에는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요(2011년 12월 5일, 경주시 거주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면접내용).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세부 추진과제는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 지원” 과제이다. 이 역시 “다솜이 가정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 지원” 과제가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기본생활 적응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면,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능력을 배양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솜이 학부모 활용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와 “학부모 자생적 조직 활동 지원”은 각각 제3순위와 제4순위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은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가

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하거나 학부모들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다문화교육 실행 기반 확대

“다문화교육 실행 기반 확대” 과제는 지방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며, 다문화가정 공동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정책수립 및 다문화교육 시행을 위한 행정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조직 및 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다문화가족 공동 커뮤니티 지원의 네 가지가 포함된다.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조직 및 운영”의 경우는 다문화교육 정책의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및 교육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도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사,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과제의 경우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되는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내 주요지역별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수 및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현장체험의장을 제공하며, 관련 인력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 상담을 시행한다. 다음에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과제의 경우는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며, 다문화교육 관련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매년 다문화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례발표를 행하며, 연 1회씩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며, 다문화교육 우수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공동 커뮤니티 지원” 과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며, 일반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어울림 체험나들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교육 실행 기반 확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초등학교교사들의 중요도 평가를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제1순위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며(중요도 0.3798),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 공동 커뮤니티 지원(중요도 0.2791),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조직 및 운영(중요도 0.1979),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중요도 0.14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다문화교육 실행기반 확대”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세부 추진과제	중요도	순위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조직 및 운영	0.1979	3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0.3798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0.1432	4
다문화가족 공동 커뮤니티 지원	0.2791	2
합계	1.00	-

여기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과제가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문화교육은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을 설치하여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유관기관들 간에 제대로 협조나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물론, 중복으로 인한 낭비현상이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은 특성화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김천, 예천, 구미, 포항의 4개 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교수 및 학습방법 개선, 현장 체험학습, 연수지원, 다문화가족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소질 계발과 결혼이주여성의 적응력향상 및 일자리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4개 지역의 경우도 아직 제대로 된 성과평가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제2순위는 “다문화가족 공동 커뮤니티 지원”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이들에 대한 차별과 따돌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는 “다문화가족 공동 커뮤니티 지원” 과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35팀이 참가하여 1박2일간 ‘우리문화 어울림체험 나들이’를 실시하는 정도이며, 상시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제3순위는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인데, 이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거버넌스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15명 이내의 공사부문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산하의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10명 내외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연간 몇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정도이며, 대부분의 행정관련 협의회가 그러하듯이 여기서 내실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자녀, 일선학교 교사 등의 참여가 미흡하여 이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는 어렵다.

#### 4)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과제는 일반학생, 일반학부모, 다문화가정 시부모 등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부모 나라에 대한 문화탐방을 지원하며, 다문화교육 교사들의 지도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에는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교육 실시,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 학



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 실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자료제작·보급의 네 가지가 포함되는 데, 우선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교육 실시” 과제의 경우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하며,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 과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부모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은 “부모와 함께 가는 부모나라 방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간 100가족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 실시” 과제는 일반학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다문화가정 및 며느리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별로 학부모와 시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간 결연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자료제작·보급” 과제는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전문성과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교사 직무연수 시에 다문화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며, 도단위에서 다문화교육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며, 다문화교육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듯이,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교육 실시”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중요도0.3213), 이어서 “학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 실시”(중요도 0.3136),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자료제작·보급”(중요도 0.2079),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중요도 0.1572)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세부 추진과제	중요도	순위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교육 실시	0.3213	1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	0.1572	4
학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 실시	0.3136	2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자료제작 보급	0.2079	3
합계	1.00	-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과제들 중에서 1순위는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 교육 실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도 관련 교과, 재량활동, 특활활동,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보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개편된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다문화 시범학교와 일반학교는 교육의 열정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시범학교는 교사의 열정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일반학교는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교과과정에 다문화교육이 들어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고, 교과서 내용도 주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균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진지하게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제가 볼 때 10점 만점에 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2011년 12월 4일, 경상북도 울주군 지역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담당교사와의 면접내용).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서 내용도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부적절한 부분이 적지 않다.

“눈이 크고 얼굴이 까만 나영이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알림장을 못 읽는 준희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고, 김치 못 먹어 찢찢때는 영호 아저씨 각시는 몽골에서 시집왔고...(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 2012 개정판)”. 즉,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있는 ‘걱정마’라는 시에는 ‘눈이 크고 얼굴이 까만’ ‘김치 못 먹어 찢찢때는’ ‘말이 안 통해’ ‘우리 동네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찌나’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그리고 생활의 길잡이 3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산업기계를 다루는 이주노동자는 동남아시아인이었고, 외국인 유학생으로는 백인이 등장한다. 이는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가지게 할 수 있다(인터넷 천지일보 www.newscj.com 2012.4.23.).

다음에 2순위는 “학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 실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1순위로 나타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교육 실시”와 같은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반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학부모에 대해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시부모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은 이를 통하여 시부모들이 며느리인 결혼이주여성과 손(孫)자녀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가정에서의 적절한 인성지도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자료제작·보급”과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은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원 연수과정에 다문화교육 영역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여 70명의 교원에게 다문화교육 이해 및 지도방법에 대하여 32시간의 집합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다문화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일선 초등학교 교교사들이 이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높지 않게 부여하는 것은 직무연수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직무연수를 받고 학교로 복귀하더라도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수의 효과가 적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 진다.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의 경

우는 다른 세부 추진과제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함께 가는 부모나라 방문” 프로그램이 이벤트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선발된 소수의 다문화가정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불만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만 일주일 전후의 방문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 5)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과제는 다문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고, 다문화교육 거점 기반을 구축하며, 학교 및 교실에서의 다문화적 환경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은 정책과제 시범교육청 운영, 다솜이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 거점·이해교육 중점학교 운영이라는 세 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정책과제 시범교육청 운영” 과제는 다문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고 다문화교육을 확산하며,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1년의 경우는 김천교육청과 예천교육청 두 곳을 다문화교육 정책과제 수행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여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내 8개 학교를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과제를 학교 현장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학교당 5백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솜이학교 지정·운영” 과제는 다문화교육 거점 기반을 정착하고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역교육청 별로 1개교씩 총 23개교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당 5백만 원씩의 예산이 배정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거점·이해교육 중점학교 운영”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및 단체활동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거점학교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중점학교로 선정하여 교과교육 및 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및 교실에서의 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9>에서 나타나듯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세부 추진과제는 “다문화교육 거점·이해교육 중점학교 운영”(중요도 0.3804)이며, 그 다음으로는 “다솨이학교 지정·운영”(중요도 0.3212), “정책과제 시범 교육청 운영”(중요도 0.29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세부 추진과제	중요도	순위
정책과제 시범 교육청 운영	0.2984	3
다솨이학교 지정 운영	0.3212	2
다문화교육 거점 이해교육 중점학교 운영	0.3804	1
합계	1.00	-

여기서 1순위로 나타난 “다문화 교육 거점·이해교육 중점교육 운영”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와 다문화 이해교육 중점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및 교실에서의 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반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거점학교와 중점학교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문화교육의 성과점검,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 등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은 동 과제에 대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상북도 관내의 경우 다문화교육 거점 초등학교는 5개, 다문화 이해교육 중점 초등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며, 예산지원도 영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2순위로 나타난 다솨이학교와의 관계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다솨이학교 지정 과제의 경우도 목적을 다문화교육 거점기반 정착 및 확산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거점학교와 목적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순위로 나타난 “다솨이학교 지정·운영” 과제의 경우는 지역교육청별로 초·중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씩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학교당 5백만 원에 불과하여,

이 정도의 예산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4.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복합가중치 분석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주요 과제별로는 다솨이 학부모 역량강화, 다솨이 생활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다문화교육 실행기반 확대,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18개 전체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복합가중치 분석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위 30%에 해당하는 5순위까지의 우선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0>에서 보듯이 전체 1순위는 “취학 전 다솨이 생활적응력 향상 지원”(중요도 0.1155), 이어서 “다솨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 지원”(중요도 0.1003), “다솨이 기초학력 정착 지원”(중요도 0.0815), “다솨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 지원”(중요도 0.0797), “다솨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중요도 0.07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하위순위 30%에 해당하는 세부 추진과제들로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일반화” 과제를 필두로(중요도 0.0233), “정책과제 시범교육청 운영”(중요도 0.0278),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중요도 0.0292), “다솨이학교 지정·운영”(중요도 0.0300),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조직·운영”(중요도 0.0323)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복합가중치 분석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순위가 높은 사업들은 모두 다문화가정 학생 혹은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서비스 지원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이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초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초등학교 입학 초기의 생활적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시기가 중요한 만큼 취학 전부터 이들의 기초학습을 강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학업성취 및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기본학력

이

<표 10> 다문화 교육전략의 복합가중치 분석결과

다문화 교육과제*다문화 추진과제			중요도	순위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 기본학력 정착	0.2680	취학 전 다솜이 생활적응력 향상 지원	0.4309	0.1155	1
		다솜이 기초학력 정착 지원	0.3042	0.0815	3
		다솜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	0.2649	0.0710	5
		소계	1.0	-	-
다솜이 학부모 역량 강화	0.2900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지원	0.3458	0.1003	2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지원	0.2747	0.0797	4
		학부모 자생적 조직 활동 지원	0.1729	0.0501	10
		다솜이 학부모 활용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0.2066	0.0599	7
소계	1.0	-	-		
다문화교육 실행 기반 확대	0.1630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조직 운영	0.1979	0.0323	14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0.3798	0.0619	6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0.1432	0.0233	18
		다문화가족 공동 커뮤니티 지원	0.2791	0.0455	11
소계	1.0	-	-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0.1857	학교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교육 실시	0.3213	0.0597	8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	0.1572	0.0292	16
		학부모 및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실시	0.3136	0.0582	9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자료제작 보급	0.2079	0.0386	12
소계	1.0	-	-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0.0933	정책과제 시범교육청 운영	0.2984	0.0278	17
		다솜이학교 지정 운영	0.3212	0.0300	15
		다문화교육 거점 이해교육 중점교육 운영	0.3804	0.0355	13
소계	1.0	-	-		

신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제고를 토대로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1:1 멘토링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는 것 역시 이들의 전반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

는 맞춤형 상담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자녀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자녀들에 대한 지도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들을 통하여 보면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본학력 신장 및 학부모의 생활적응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복합가중치 분석에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것들 즉,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시범교육청 운영, 부모나라 문화탐방, 다솜이 학교 운영,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운영 등은 모두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관리와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들이다. 물론 다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육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후선에서 지원해주는 교육행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선교사들이 이러한 교육행정 관련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게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며, 해당 세부 추진과제들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러한 설문결과는 교육당국의 탁상행정, 전시행정, 폐쇄적 행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우수사례 발굴의 경우는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부모나라 문화탐방의 경우는 소수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역시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나라를 단기간 방문한다고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시범교육청 운영과 다솜이학교 운영의 경우는 그 동안 교육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시범운영 사례들이 워낙 많으며, 그렇다고 큰 효과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운영의 경우는 동 협의회가 현실적으로 일선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관료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협의체 역시 교육현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것이어서 별로 신뢰성을 두지 않고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의 인식을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일선교사들은 우선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5개 주요 과제들 중에서는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다문화교육 실행 기반확대, 다문화교육 선도기관 운영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일선교사들은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에 각각 1, 2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듯이, 지원 및 후선(後線)사업보다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면서 교육효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역량강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설문응답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직 학생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은 물론 학업성취를 이루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는 언어소통의 문제, 한국의 문화 및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하는 것은 설문에 응답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이 그 동안의 교육당국의 형식적 교육행정 및 중구난방의 사업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 아닌 가 추측된다.

다음에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취학 전 다솜이 생활적응력 향상 지원, 다솜이 가족 기본생활 적응력 정착지원, 다솜이 기초학력 정착 지원,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지원, 다솜이 기본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교육현장 혹은 가정 내에서 직접 부딪치게 되는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로서, 전술한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순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은 현장교육 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운영, 유사 중복 프로그램의 통합연계성 제고, 관리기

구의 일원화,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교육의 적실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시(展示) 및 이벤트(event)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탈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위주의 다문화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지방단위에서는 지방교육당국은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물론 선의의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로부터의 득표를 의식하여 홍보성사업을 추진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은 이벤트 성격이 강한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 등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전시성 사업을 적절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획일적인 다문화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즉, 다문화교육 지원사업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한국어능력, 학력수준, 서비스욕구, 학년 및 연령, 출신국가 등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sup>6)</sup> 가령,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 과제의 경우는 농한기교육, 방문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이들의 학업성취도, 적기특성, 한국어능력 등의 개별적 요인을 감안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 지원사업과 일반 취약계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사업들(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간에 시너지

6) 맞춤형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접결과에서도 잘 확인할 수가 있었다. “...사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것을 먼저해야하는가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부모의 수준, 어머니의 출신국가, 가정형편, 성격, 학력차이 등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유형 및 구성 분석,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이 중요합니다...”(경상북도 상주지역 초등학교 다문화교사와의 2011년 12월 2일자 면접내용)

(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김순양·전기우, 2011). 즉, 현재 다문화교육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면에서 낭비적 요인이 많다. 물론,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들 간에 교육수요가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공통분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로서, 학습부진 교과목 학습, 영어수업 등은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교육 사업들 간의 통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사업들이 상호연관성이 높은지를 분석하며, 다음에는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통합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 시행체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교육당국은 시범교육청, 다솜이학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중점학교,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별도로 다양한 종류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제 각각 개입하게 되면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수혜자인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다문화교육 전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도 초등학교교사들은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들 중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과제에 높은 우선순위(6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문화교육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김오남, 2008).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현황, 추가 교육수요, 진로계획, 교육여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교육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모자(母子)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의사소통 상의 문제로 인하여 상호이해의 폭이 좁으며, 자녀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는 어머니로 인하여 자신이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자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모자통합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교사나 교육복지사 등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서는 “부모나라 문화탐방 지원”, “다솜이 학부모 자녀 지도력 향상지원” 등의 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의 영세성, 프로그램의 부실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다문화교육 방식의 측면에서도 교육접근성의 향상, 교육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현재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시·군청 소재지로 나가야 하지만, 교통편 등이 여의치 않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방문교육, 멘토링, 농한기교육, 휴일교육 등 교육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각 급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자격과 자질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는 매우 부실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화된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다문화교사 자격증제도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 경상북도교육청. (2011a). 「경상북도의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_\_\_\_\_. (2011b).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전략과 지원사업 계획」.
- \_\_\_\_\_. (2012). 「다문화가정 학생 수」.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안)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0).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중등과정 학습권 보장돼야」. 1월 25일. 보도자료.
-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201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 김순양·전기우. (2011). 지역사회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탐색: 대구·경북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1209-1242.
- 김오남.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파주: 집문당.
- 김희연. (2010).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방안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박정수·홍은주. (2006). 「향후 10년간 교육양극화 해소 재정소요 및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천웅. (2010). 「다문화 교육의 탄생. 안산」. 국경없는마을 출판사.
- 안경식 외. (2009).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07). 「결혼이민자가정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 오성배. (2005). 코시안(K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원희목. (2008). 「오늘의 경제위기 이후 서민들의 삶은」. 서울: 원희목의원실.
- 이봉주. (2010).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과 과제. 「월간복지동향」, 143: 8-10.
- 정하성 외. (2007). 「다문화 청소년 이해론」. 경기: 양서원.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교육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연구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최우람. (2004).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요구의 중요도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http://cafe.daum.net/phil-wedding> (필리핀웨딩커뮤니케이션). (2012). 5월 30일 접근.
- [www.newscj.com](http://www.newscj.com) (천지일보). (2012). 4월 23일 접근.



**Exploring the Priority of the Education Support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reduce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al Disadvantage**

Kim, Soon-Yang  
Yeungnam University, Korea

Shin, Yeong-Gyun  
Yeungnam University, Korea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riority of the Education Support Program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implement to address the educational inequality of multi-cultural students. The research conduct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among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Gyeongbuk Province and interviewed them to obtain more detailed information. We found that parents prioritize the parents' capacity-building and acclimatiz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through basic academic skills among others. The most important programs are practical and effective for the address of educational inequality. We recommend the long-term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rograms relevant to the field of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ew programs reflects the needs of multi-cultural students. We also suggest to link education support to multi-cultural students and education-welfare programs, and promote parent-child linked programs,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method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Key Words: educational inequality, education support for multi-cultural students, AHP]

---

논문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수정일: 2012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30일

제1저자: 김순양(Kim, Soon-Yang)  
소속 및 직위: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번지  
전화번호: (053) 810-2657, 이메일: kimsy@ynu.ac.kr

교신저자: 신영균(Shin, Yeong-Gyun)  
소속 및 직위: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강사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번지  
전화번호: (053) 810-2630, 이메일: visionshin@hanmail.net